

2000年代 우리 産業의 發展비전과 政策方向(Ⅲ)

權 坪 五*

3. 21世紀를 향한 産業政策方向과 課題

가. 21世紀의 發展目標과 基本政策方向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하여 우리 산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世界一流水準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世界中心國家로서의 高度産業社會를 구현하는 데에 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산업의 서비스화·소프트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볼 때 제조업의 발전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정부는 待望의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先進産業國으로 성장하는 데에 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參與와 능동적 創意를 바탕으로 강하고 효율적인 기업을 창출하는 「新경제」산업정책의 기초 아래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산업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부역할의 재정립과 정책운영방식의 선진화, 세계일류수준의 산업경쟁력 확보노력 경주, 산업활동여건의 最適化노력 강화,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국민의 '삶의 質'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데에 산업정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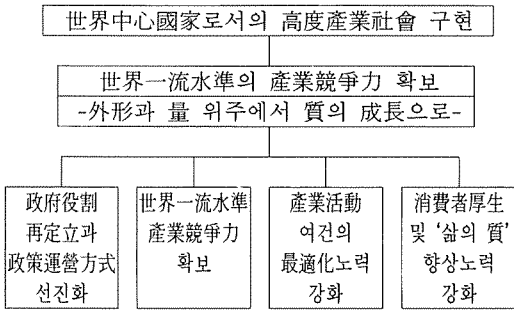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정책수단의 제약과 민간부문의 능력향상을 감안하여 정부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운영방식을 선진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시장기구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명백한 시장실패의 교정에만 개입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보완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정착에 부응하여 정부와 地自體간의 산업정책상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원활한 정책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정부지원은 기능별 지원과 장기비전 제시 등을 위주로 선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계일류수준의 산업경쟁력 확보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고도화하고, 경쟁력약화산업이 원활하게 구조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제의 소프트화, 異業種交流 및 技術融合化의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제조업과 관련서비스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最適經營體制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선진국수준의 산업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최대한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대

* 通商産業部 産業政策課 書記官

(21세기 산업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기업간의 질적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세계,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생산요소의 質的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융·외환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물류를 효율화하며, 산업인력의 공급확대 및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내제, 소비자 수요패턴의 변화 및 국민의 '삶의 質' 향상요구에 부응하여 소비자와 수요측면을 중시하는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柔軟生産體制 및 迅速對應體制(Quick Response System)의 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高齡化趨勢 및 안전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산업안전수준의 제고, 고령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 重點 推進課題

① 産業構造의 質的인 高度化를 중점 추진할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外形의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하지만, 部品·素材 및

資本財 산업의 낙후로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으며, 첨단기술산업 등 미래산업발전을 주도할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산업부문에서 核心戰略分野가 주도하는 산업발전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世界一류가 가능한 특정분야(World-class Champion)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成長機會先占 노력을 조장하고, 교육제도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 간접지원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對外依存型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본재 산업육성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미래의 수요에 대응한 차세대 제품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경쟁력약화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경쟁력약화산업으로부터 限界企業이 자연스럽게 퇴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그 대신 고부가가치화와 수출마케팅 등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문을 위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② 産業活動 전반에 걸쳐 競爭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新規進入規制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공업발전법상의 合理化措置 등 명백한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는 진입규제를 지양할 것이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하여 기업이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감시제도의 개선과 불공정 내부거래의 시정 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경제력집중완화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상호 조화되도록 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③ '95년에 수립한 「技術下部構造擴充 5개년계획」과 「産業技術開發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産業技術力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자체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는 자체

개발을, 그리고 선진기술 흡수가 불가피한 분야는 외국의 기술보유회사 인수·합병, 지분참여, 원천기술 소재지에의 연구소 설립 등을 촉진하는 등 기술분야별 특성과 우리의 여건을 감안한 산업기술 획득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WTO협정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基盤技術-試製品 개발 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력·정보·연구시설 등 기술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産業技術大學을 설립·운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업종별단체의 기술인력양성기능을 활성화하여 산업기술인력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한 대학의 연구시설을 2000년까지 50~70%로 확충하기 위한 자금지원과 복합형 산·학·연 공동연구단지의 조성을 확대하고, 자본재·정보·색채 등의 標準化事業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技術保險制度 및 技術擔保制度의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④ 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海外投資와 外國人投資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첨단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천안) 또는 분양(광주)중인 外國人企業專用工團의 분양상황을 보아 필요한 경우 추가조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汎政府次元의 해외투자·시장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검토

하고, 민간차원의 기술정보알선회사 설립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⑤ 中小企業의 自生的 경쟁력기반을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경쟁환경의 조성 및 경쟁력기반의 강화, 질적 성장을 위한 경영여건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의 競爭制限的 制度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질적 협력관계가 확대·심화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지원제도는 물류·기술개발·인력양성·정보화 등 기능별 지원 위주로 전환하되,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무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기술전문 중소기업 등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의 적용대상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기업규모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저리 설비자금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財務構造 充實化 유도, 販路擴大, 創業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⑥ 국내의 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작년에 제정된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 관한 法律」에 의거하여 5년 단위의 綜合施策을 수립·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10개 업종의 「産業環境實踐課題」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업의 淸淨生産技術 개발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淸淨生産技術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지원·정보보급·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環境經營認證制度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환

경경영 확산을 위한 진단지도사업을 강화하며,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⑦ 地方産業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정립하고, 중앙·지방간에 政策調和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다. 또한, 落後地域의 개발과 地域特化産業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地方産業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 입지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⑧ 消費者와 需要를 중시하는 산업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까지 산업정책은 공급자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나, 소비패턴의 다양화·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요구 등에 맞추어 企業競爭力의 강화와 消費者厚生의 증대가 조화되도록 福祉時代에 부응한 산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柔軟生産技術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製造物責任(Products Liability)制度의 도입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구의 高齡化趨勢에 대응하여 老人産業(Silver industry)의 정착을 위한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⑨ 이러한 산업부문의 노력과 병행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반이 되는 금융·외환, 산업입지, 산업인력, 산업정보, 산업물류 등을 확충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金融 및 外換에 있어서는 시장원리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通貨管理方式을 間接規制方式으로 전환하고, 각종 여신규제를 축소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조정과 합병·

매수·증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外換·資本市場의 개방화·국제화를 완결하여 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産業立地에 있어서는 2005년까지 長期需給展望과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공업입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公害業種의 集團化 등 環境親和的인 입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統一에 대비한 工業配置計劃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단지의 연계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産業人力에 있어서는 현장중심의 기술·기능인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제도, 직업훈련제도 등을 개편하고, 여성 및 고령자 등 유희인력의 산업현장 유인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확대, 제도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勞動關係 法制와 慣行을 國際勞動基準 및 대내외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産業情報의 공급과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汎政府次元의 超高速情報通信網 구축과 병행하여 업종별·분야별·지역별로 산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산업관련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나아가 국내 산업계의 生産調達運營 綜合情報(CALS)체제의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産業物流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장기비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物流基盤施設의 확충 및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 主要 産業別 發展戰略

메카트로닉스

知的生産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始華工團에 자동화기술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이다. 또한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동화설비자금을 현재의 1조원 수준에서 2005년에는 5조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고, 금년중 설립할 자동화설비시험센터를 통하여 국산 자동화설비에 대한 品質認證 및 瑕疵保證을 실시할 것이다.

自 動 車

정부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技術力을 선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기업은 燃比改善·공해방지·안전도향상 기술 및 주행성·편의성 등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고, 정부는 전기자동차 등 위험부담이 많고 공익성있는 자동차의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重層的 系列化를 구축하고, ‘自動車産業 物流改善協議體’를 중심으로 물류체계의 과학화·합리화를 추진하며, 자동차 딜러제도의 도입·정착 및 割賦金融會社의 설립을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사후봉사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造 船

세계주도형 조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主力船種의 경제선형 개발, 환경보호기술, 원가절감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초고속선 등 차세대 선박 개발능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대형 조선업계의 專業度를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海洋開發設備 등 관련 부문으로 사업을 多角化하도록 유도함으로써 造船市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인력수요의 증가와 조선근로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중장기 인력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尖端電子情報

차세대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며, 발전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높이면서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첨단기술 개발능력을 제고하고, 원재료 구입선의 다변화와 최적지역의 생산체제 구축 등 국제화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첨단전자정보기기의 시스템화에 대응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家 電

기존제품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素材 및 核心部品の 개발과 제품별·공정별로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편, 신제품분야는 민·관 협력체제를 통하여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관련제품과 高畫質TV, 평판디스플레이 등 성장유망제품의 조기개발 및 상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가전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店舖의 대형화, 기존 대리점의 專門店·特性店으로의 차별화전략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新 素 材

산업구조 고도화추세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소재의 개발에 중점을 두되, 국내 산업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소재를 우선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5년까지 4,490억원을 투입하여 新金屬 19개, 파인세라믹스 13개, 高分子材料 15개 등 총 47개 과제의 개발을 추

진할 계획이다.

鐵 鋼

長期需給展望을 정기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적정설비투자를 유도하되,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대응하여 고로보다는 Mini Mill공법에 중점을 둘 것이다. 高附加價值製品의 생산비중을 현재의 9% 수준에서 2005년 1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鐵鋼 21世紀運動’을 3년 연장(’95→’98)하여 시행하고, 용융환원제철기술·연속압연기술 등 혁신철강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철강생산업체·유통업체·수요업체를 연계하는 ‘鐵鋼物流情報網’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淸淨燃料인 LNG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石油化學

합리적인 신·증설투자를 유도하여 에틸렌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세계 제5위 수준을 유지하고, 기술수준도 미국의 33% 수준에서 2005년에는 7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적극적인 사업다각화 및 세계화전략을 전개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일류의 종합석유화학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원단위의 개선 및 CFC발포제의 전면대체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아시아 시장의 주도권을 견지하면서 아프리카·남미 등으로 수출지역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산업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織 維

勞動集約的 산업구조로부터 2000년대 技術集約的 高附加價值製品 위주의 선진국형 生活·文化産業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

를 위하여 생산품목을 中·高價品으로 전환하여 세계적인 패션제품 생산국으로 발전시키고, 첨단기능소재 등 산업용 섬유의 생산비중을 현재의 25% 수준에서 2005년에는 5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尖端染色加工技術의 개발을 위한 ‘Dytech21事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迅速對應體制(Quick Response System)의 도입을 확산시켜 소비자의 수요패턴 변화에 대응한 제품생산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4. 21世紀初 우리 産業의 발전비전

가. 産業 및 貿易構造의 高度化

이러한 對內外 産業與件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할 경우 2000년대초까지 우리 산업은 産業構造가 技術·知識集約化되고, 생산체제가 柔軟化되며, 산업의 서비스화가 확산·심화되고, 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등 선진국 수준에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은 2005년까지 實質 GDP성장률보다 높은 8% 수준으로 성장함으로써 앞으로의 산업발전도 제조업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조업내에서도 자동차·전자·기계 등의 加工組立産業이 수요의 지속적 증가, 첨단기술의 응용에 따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尖端技術産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은 經常價格基準으로 2005년까지 연평균 16%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산업의 제조업내 비중은 현재의 10% 수준에서 2005년에는 2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첨단기술이 기존산업분야에도 접목되어 산업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표 3〉 산업별 실질성장률 및 산업구조 변화전망
(단위: %)

	성 장 률		산 업 구 조		
	1993~ 2000	2000~ 2005	1993	2000	2005
농림수산업	1.4	1.3	7.1	4.6	3.5
제조업	8.5	7.5	27.1	28.4	29.1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9.0	8.5	13.3	14.4	15.4
기타 서비스업	7.9	6.8	52.2	52.4	51.8
국내총생산(GDP)	7.8	7.0	100.0	100.0	100.0

* 자료: 산업연구원('95)

〈표 4〉 중장기 수출입전망
(단위: 억달러, %)

	2000		2005	
	금 액	증 가 율	금 액	증 가 율
수 출	2,240	12.2	3,500	9.3
수 입	2,230	10.5	3,350	8.5
무역수지	10	-	150	-

③ 貿易構造가 선진국형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輸出商品構造에 있어서는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2005년까지 연평균 16.5%씩 증가한 반면, 기존제품은 海外生産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기간중 6~8%에 그침으로써 2005년경에는 첨단기술제품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편, 輸入商品構造에 있어서는 자본재의 수입비중이 낮아지고, 반면 가전제품·섬유류·신발 등 소비재가 해외생산제품의 逆輸入 증가로 주종수입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선진국수준의 자체 산업기술력 확보

技術水準에 있어서는 생산기술은 물론 핵심기술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 갈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및 조선관련 기술은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전자제품,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관련 기술은 20~30년내에 선진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제어·계측, 光, 항공·우주, 생명공학 관련 기술도 30~40년 후에는 선진국의 70~9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기술기반의 확충과 기술혁신능력의 향상으로 우리 힘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다. 主要 産業別 位相 변화전망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권 이내인 조선(2위), 가전(3위), 섬유(4위), 석유화학(5위) 등은 향후 10년간 대체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산업, 항공기산업, 생물산업 등 현재 발전 초기로서 세계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산업들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보면, 資本集約的이거나 技術·知識集約的이면서 성장기에 있는 첨단전자정보, 항공기, 생물, 환경, 자동차, 일반기계 등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세계속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한편, 資本集約的인 산업이면서 기술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가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대체로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고, 勞動集約的인 성격이 강하면서 기술발전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 신발 등의 산업은 세계속의 위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주요 업종별 경쟁력 및 세계속의 위상변화 전망

	1993		2005	
	세계 시장 점유율(%)	순 위	세계 시장 점유율(%)	순 위
첨단전자정보	3.1	6	8.0	4
자 동 차	3.4	6	7.5	4~5
항 공 기	0.2	15	2.1	10
일 반 기 계	1.8	7	2.8	6
생 물 산 업	1.5	7	5.8	5
환 경 산 업	0.02	20이하	1.5	10이내
조 선	25.8	2	33.2	1~2
철 강	4.5	6	6.0	6
석 유 화 학	7.8	5	8.0	5
가 전	9.1	3	8.5	3
섬 유	5.9	4	4.2	4
신 발	9.8	7	5.2	10

〈끝〉